

베트남의 민족주의의 형성과 전개*

장 임 숙

(부산대학교)

(mukk73@naver.com)



1. 들어가며

베트남은 세계 어느 지역보다 민족주의가 강력한 이데올로기적 해계모니를 형성한 나라라고 할 수 있다. 베트남이 중국의 오랜 지배로부터의 자립과 프랑스 식민지 해방을 위한 독립전쟁, 그리고 냉전체제 하에서 벌인 미국과의 전쟁 이 모두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민족주의였다. 즉 베트남은 제3세계 국가 중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해방의 전통을 가진 나라이다.

* 본 논문은 2010년(중점연구소지원사업, 인문사회분야)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0-413-B00026).

성공적인 민족 해방을 이루어낸 베트남은 54개의 민족들로 구성된 다민족국가이다. 기나긴 저항의 역사 속에서 인구의 절대 다수인 킨족을 제외한 53개의 소수민족들을 규합하고 동원할 수 있었던 근거에는 어떠한 민족이념이 작용한 것일까? 호치민은 민족주의를 프랑스와의 전쟁과 사회주의 국가건설에 활용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식민주의는 민족주의를 공고히 하는데 기여했으며, 반제국주의적·반자본자주의적 민족주의는 어떠한 통치이데올로기보다 훌륭한 단결력과 충성심을 끌어낼 수 있었다.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은 인민보다는 민족이란 용어로 스스로를 규정하면서 성공적인 혁명을 이루었지만, 지금은 내부적으로 하위 민족주의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우리가 민족주의를 논할 때 우선적으로 직면하는 문제는 민족의 개념과 민족주의의 기원이 여전히 논쟁적이라는 사실이다. 민족을 보는 관점은 크게 고대로부터 이어진 연속적이고 원초적인 실재적 존재로 보는 시각과 근대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근대화의 산물로 보는 시각으로 나눌 수 있다. 민족을 상상의 공동체라고 주장하는 베네딕트 앤더슨(Benedict Anderson)은 후자의 관점에서 민족을 정의한다. 앤더슨(Anderson)은 민족이란 근대 세계가 형성되면서 정치적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인류학적 문화적 조형물이라고 주장하면서, 가족, 인종, 언어, 역사, 영토 등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을 동원하여 만들어진 제한되고 주권을 가진 것으로 상상되는 정치공동체가 바로 민족이라는 것이다(Anderson 2004, 25).

그런데 근대 민족국가가 성립된 이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민족'의 개념과 '민족주의'의 성격은 시대적 배경이나 상황적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변모되어 왔다. 예컨대, 18세기의 자유주의적 민족주의는 19세기에 전체주의와 결합하면서 민족의 이름으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특정 이데올로기를 합리화하는 도구로 활용되었고, 20세기에 제3세계로 확산된 민족주의는 제국주의적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해 민족해방의 논리를 내세웠지만 결국 민중을 억압하는 도구로 작용하였다. 이처럼 민족주의는 해방과 억압이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존재한다. 또한 영국, 프랑스 등 선도 산업국가의 민족주의와 독일, 이탈리아 등 후발 산업국가의 민족주의, 그리고 제3세계의 민족주의는 각기 다른 모습으로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하였다. 이것은 민족의 의미와 민족주의의 구체적인 모습은 개별 국가의 역사적 과정 속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이 글은 세계적으로 민족주의가 강력한 이데올로기로서 작용한 베트남을 중심으로 민족과 민족주의의 의미와 그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베트남의 민족주의는 프랑스 식민지배로부터의 해방과 독립, 그리고 베트남전쟁이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형성된 역사적 산물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형성되고 작동하는 민족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베트남에서 민족과 민족주의는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오늘날 베트남 민족주의는 어떠한 배경과 조건에서 만들어지고 또 변화되어왔는지, 그리고 국가체제의 형성 및 유지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

을 하였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2. 민족주의의 태동기 : 중화세계 속의 베트남과 “남국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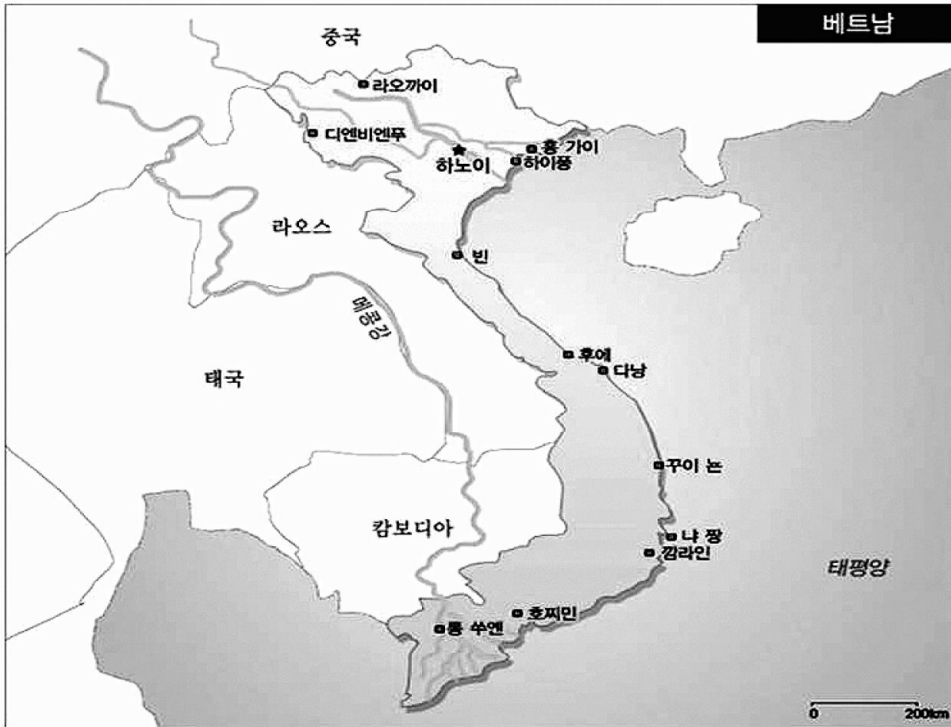
현재 동남아시아의 일원으로 인식되는 베트남은 근대 이전에는 중화세계의 일원이었다. 전근대에 걸쳐 베트남에 가장 큰 지배력과 영향을 미친 국가는 중국이었다. 10세기 이전까지 베트남은 중국의 직접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고대부터 중세까지 베트남의 역사는 중국사의 변방사로 기술되었다.

베트남 최초의 국가는 기원전 257년에 홍방 왕조에 의해 세워졌으나, 기원전 111년 전한(前漢)에 복속된 이후 1000년간 중국의 지배를 받았다. 그러다가 서기 939년 응오콴옌(吳權)장군이 박당강(Bạch Đằng River)전투에서 중국 세력을 몰아내고 최초의 독립국인 다이비엣(大越)을 세운다. 이것이 오늘날 베트남의 국가적 기원이 된다. 당시 국가의 영토는 현재의 북부 베트남지역에 머물렀다. 이후 딘왕조, 레왕조, 리왕조, 쩌왕조까지 이어졌지만, 정치·사회·문화 영역에 중국의 문명을 채택하면서 중화세계의 일원으로서 존속하였다.

1406년, 호왕조가 다시 중국 명나라의 속국이 되면서 1428년 ‘레 리’에 의해 후기 레왕조(後黎)가 들어서기까지 20여 년간 중국의 지배하에 놓이게 된다. 1428년에 세워진 후기 레 왕조는 정부체제를 확립하고 각종 제도를 정비하고 고유의 법률과 전통문화를 발전시켰다. 바로 이 시기부터 베트남이 ‘북국’인 중국에 대응해 자신을 ‘남국’으로 규정하고, 독자적인 영토, 문화, 역사를 가진 독립국가로서 “남국의식”을 공고히 하기 시작하였다. 15세기 중반 베트남은 중국이 주장하는 것처럼 오랑캐가 아닌 중국과 동등한 문명국으로서, 중국과 명확히 구분되는 영역과 문화가 있고, 베트남만의 왕조와 역사를 지닌 독자적인 존재로 인식한 것이다(이병주 2010, 214). 15세기에 롱 티엔(Long Tien)신화라 불리는 베트남의 건국신화가 만들어진 것도 남국의식을 체계화하기 위한 작업 중의 하나였다.

한편, 15세기 중반까지 베트남은 현재의 북부와 중부의 일부 지역에 위치한 나라였다. 중부 지역에 참파(Champa) 왕국이 존속했고, 남부지역은 캄보디아의 영토였다. 베트남은 500년에 걸쳐 남진정책을 추진하여 15세기에 중부지역을 차지하고, 18세기에 남부 전역을 점령하였다. 남진정책으로 영토는 확대되었으나, 가늘고 긴 형태의 국토는 이후 잦은 외세의 침략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폭이 좁은 중부의 해안평야가 적대세력에게 넘어가면 쉽게 분단되는 안전보장의 취약점을 가지게 되었고, 이것은 인도차이나반도의 등줄산맥과 캄보디아와 라오스를 중요한 군사적 전략지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와 접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그림 1〉 베트남의 지도



※ 출처 : <http://tomasuper.blog.me/80194599929>

그런데 16세기부터 18세기의 베트남은 실질적으로 두 개의 국가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현 하노이지역에 수도를 둔 지배정권에 대항하는 응우옌(Nguyen) 세력이 남부로 영토를 확대하면서 남북 간의 세력 다툼이 200년간 지속되었다. 그러나 중부지역의 떠이 썬 군대가 남부와 북부의 세력들을 모두 물리치고 1788년에 새로운 왕조를 수립하였으나, 다시 내전이 시작되었고, 남부의 응우옌 왕조가 1802년에 통일왕조를 수립하게 되었다.

응우옌 왕조는 적대적인 지역감정과 이질적인 문화를 가진 북부, 중부, 남부에 대해 처음에는 분리통치방식을 채택하다가 중앙집권체제로 전환하였으나, 오랜 지역감정은 끊임없는 반란으로 이어졌다. 결국 1859년 프랑스의 침략 당시에도 내전이 지속되었고, 1884년 프랑스 제국주의에 패배하면서 식민통치가 시작되었다.

응우옌왕조에게 북부, 중부, 남부로 나뉘는 지역감정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였지만, 각 지역 내부에 산재해있는 수많은 소수민족들을 베트남인으로 통합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였다. 당시 북부 베트남에는 22개, 중부 베트남에는 15개, 남부 베트남에는 8개의 토착민들이 존재했다. 특히 소수민족들이 평지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던 베트남인들과 분리되어 고원지대와 산지에 거주하였던 북부와 중부 베트남과 달리, 남부 베트남에

는 다수의 크메르인과 이주한 중국인들, 그리고 다양한 토착민들이 베트남인들과 뒤섞여 살았다. 19세기 전반 민족적으로 다양한 남부지역을 베트남화하기 위해 다양한 동화정책들이 광범위하게 시행되었다. 남부의 토착민이었던 크메르인들이나 말레이계 소수민족들에 대해서는 베트남 촌락과의 흡수 합병, 토착민 지역 내에 베트남 현의 설치, 베트남 행정단위로의 전환 등의 행정단위의 조정과 조작을 통해 베트남인들과 섞이게 하였고, 언어, 한자, 의복, 음식, 풍습, 농경방식 등의 전 영역에 걸쳐 베트남화를 시도하는 동화정책을 취한 반면에 17세기에 이주한 명나라 유민집단과 청의 중국인들에게는 그들의 경제활동을 노골적으로 제약하고 촌락을 파괴하거나 외모를 베트남식으로 바꾸게 하는 등의 차별적인 정책을 취했다(최병욱 1999, 344-356).

이상과 같이, 베트남의 민족의식의 형성은 베트남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가 중국에서 자립한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베트남북부는 기원전 2세기부터 중국의 지배 하에서 자립을 달성하는 것은 1000년이 지난 938년의 일이다. 베트남왕조는 북의 중국에 대해 남의 베트남이라는 전통적인 소중화의의식을 기반으로 민족적인 결합과 전통국가의 발전을 모색했지만, 19세기 중반에 그 한계를 드러내었다. 19세기 중반 프랑스의 침략과 19세기 말기의 식민지 지배에 의해 베트남은 중화세계로부터 분리되었고, 전통적인 킨족의 민족적인 기원이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대 이전의 베트남은 독자적인 베트남을 강조하면서 남국의의식을 강화해 나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중화제국의 일원으로서의 인식이 잔존해 있었다. 당시 베트남에서의 남국의의식은 보편국가 베트남의 국가의식임과 동시에 베트남인이라는 집단성을 지탱한 원초적 민족의식이기도 했다(古田元夫 2008, 29). 그리고 근대 이전의 역사는 북부, 중부, 남부로 분리되는 지역적 분리주의와 베트남인과 다양한 토착민으로 구성된 종족적 다원성을 극복하여 영토적 일체성과 민족적 통합성을 이루려는 과정이었다.

결국, 근대 이전의 베트남 민족이란 남국의의식을 기반으로 한 독립 국가의 주류 집단인 킨족 베트남인들을 의미하므로 남국의의식과 킨족 중심주의가 민족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민족이란 개념이 근대화과정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고안물이라고 하지만, 근대 이전의 베트남인들의 의식을 민족이념으로 규정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주장과 피식민지 역사 속에서 형성된 반제국주의적 민족주의는 새롭게 창출된 것이라는 주장은 모두 일면 타당하면서도 아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쉽다.

3. 민족주의의 구축기 : 프랑스 식민통치와 “반제국주의적 민족주의”

산업혁명을 겪으며 자본주의 체제를 확립한 서구 열강들이 19세기 중엽 제국주의화 되면

서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및 아시아 지역으로 식민지를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미국, 러시아 등이 아시아에 침략의 발판을 마련하였는데, 프랑스는 아시아지역에 먼저 진출한 영국과 네덜란드의 세력이 미치지 않았던 인도차이나로의 진출을 꾀하였다. 프랑스는 베트남의 응우옌 왕조가 자신들의 통상 교섭 요구를 거절하고 카톨릭 교도를 박해한다는 것을 구실로 1858년 다낭을 침략하고 1884년 베트남의 전국토를 프랑스의 식민지로 만들었다. 이어 캄보디아와 라오스를 식민지화하고 1887년 이른바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연방’을 형성하였다. 인도차이나는 역사상 통일권력이 수립된 적이 없었고 문명도 서로 다른 사회였는데, 프랑스가 베트남과 캄보디아, 라오스를 포함하는 인도차이나 전체를 지배하게 됨으로써 중화제국의 일원이었던 베트남과 동남아시아의 구성원이었던 캄보디아와 라오스가 하나의 권역으로 묶이게 된 것이다(古田元夫 2008, 46). 그러나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연방에서 그 중심은 베트남이었다. 프랑스는 베트남인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인도차이나 총독부에 프랑스인과 베트남인만을 등용하였으며, 베트남어의 로마자 표기 보급 등의 언어정책을 통해 한자문화를 프랑스문화로 바꾸는 등 베트남을 아시아의 프랑스로 만드는데 역점을 두었다.

베트남의 식민지배체제는 북부, 중부, 남부로 나누어 달리 통치가 이루어짐으로써 지역성을 심화시켰다. 중부는 안남(Anam, 安南)으로 칭하고 베트남 황제의 자치권이 일정 부분 허용되었고, 북부는 톤킨(Tonkin)¹⁾으로 부르고 프랑스인과 베트남인이 함께 지배하였으며, 남부의 코친차이나(Cochinchina)는 프랑스의 직할령이었다. 프랑스는 북부 베트남 지역에 공업지대를 건설한 반면, 남부 지역에는 대지주제, 농업의 상업화, 화폐경제체제를 도입하여 전통적인 경제구조를 와해시켰다. 이로 인해 농민들은 소작농과 무산농업노동자로 전락하면서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불만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식민통치당국에 의해 전통적인 마을공동체가 와해되면서 정치적 참여기회가 제한되었다. 이것은 민중봉기로 이어져 후일 사회주의 세력 형성에 토대를 제공하였다.

제3세계의 민족주의운동이 전통적인 사회경제적 구조의 와해와 식민정권의 파행적 근대화의 결과로 나타난 정치적·경제적 불평등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프랑스의 식민통치행정은 베트남 민족주의의 등장배경이 되었다. 민족주의는 국민국가의 형성과 더불어 탄생한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피식민지의 발전 전략을 내포하는데, 당시 베트남 민족주의의 일차적 목표는 프랑스 제국주의로부터의 해방과 베트남인의 민족국가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초기에 베트남인들은 단순히 식민지배로부터의 해방을 요구하였으나, 점차 베트남의 근대화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의 모색을 추구하게 되었다.

또한 프랑스 등의 서구열강으로 유학을 간 지식인의 증가도 베트남 민족주의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 즉 1884년부터 1910년대까지 베트남 민족주의는 주로 프랑스 식민지배에 대항한

1) ‘톤킨’은 15세기부터 하노이가 종중 동경(東京, Dongkinh)으로 불리던 것에서 유래한다(최병욱, 1999: 308).

지식인계층이 주도하는 민족해방운동의 이데올로기로서 형성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1920년대까지의 민족운동은 명확한 이데올로기를 결여한 채 유교지식인 중심의 산발적 저항운동과 광동과 홍콩을 중심으로 한 망명지식인들의 결사체형대에 국한되었다.

그런데 1920년대 말부터 사회주의 세력이 형성되면서 민족주의가 강한 정치성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First World War)이 종결된 후, 민족자결주의의 영향으로 베트남의 민족주의운동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1925년 호치민은 청년 지식인들을 결집하여 베트남 최초의 청년단체인 베트남혁명청년동지회(Hoi Viet Nam Kach Menh Thanh Nien)를 결성하였고, 1926년 지식인들이 중심이 되어 신베트남혁명당(Tan Viet)을 결성하고, 1927년 중국 국민당의 영향을 받아 베트남국민당(VNQDD)이 창설됨으로써 민족주의자들이 조직화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사회주의 세력이 형성될 수 있었던 배경은 프랑스 식민통치체제가 시행한 근대식 교육의 영향으로 지식인층이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베트남인들은 근대식 교육을 받았지만 취업의 기회는 제한되고 피식민지 국민으로서의 차별 대우를 경험하면서 민족해방을 이루기를 원하였다. 따라서 1920년대까지 민족주의는 제국주의로부터의 해방과 독립을 추구하였으나 명확한 이데올로기를 결여하고 있었다.

한편, 민족의 개념은 국제 관계 및 다른 민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당시 베트남은 프랑스의 인도차이나 지배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중화세계의 일원이라는 관념에서 탈피하고 캄보디아, 라오스 등과 연대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왕조체제의 남국의식이 프랑스 식민지배 하에서 더 이상 저항의 논리가 되지 못한다고 보고, 피를 나눈 동포의 일체감 즉 민족 내지 국민의 이름으로 베트남인의 단결을 모색해야 한다는 인식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古田元夫 2008, 58). 그리하여 피를 나눈 민족적 결합으로써 베트남인의 일체감을 이루기 위해 사용된 것이 ‘동포’이며, 이러한 결합이 오래전부터 있어왔음을 보이기 위해 사용한 것이 건국신화에 기원을 둔 ‘롱티엔(Long Tien)의 자손’이라는 상징이었다.

하지만 초기에 민족의 개념은 중국 한민족과 피를 나눈 문명세계의 구성원이라는 전통적인 남국의식의 요소와 함께 베트남 주변민족(캄보디아인, 라오스인, 기타)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킨족 베트남인 중심주의를 보이기도 하였다(古田元夫 2008, 60-61). 이처럼 당시 베트남인들은 지리적으로 북부의 퉁킹, 중부의 안남, 남부의 코친차이나라는 세 지방을 베트남으로 인식할 뿐, 캄보디아, 라오스 등을 포함하는 큰 틀의 인도차이나에 대한 개념은 확립되어 있지 않았다. 이것은 베트남 민족주의를 이끈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민족주의자들은 과거 역사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베트남 외의 소수민족들은 베트남인과 연대해야 할 대상이라기보다는 관리의 대상으로 인식했으며, 그들이 목표로 삼는 베트남 민족국가의 국민은 킨족 베트남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 시기에 베트남 지식인들은 “nation”의 개념을 “국가(Quoc Gia)” 혹은 “민족(Dan Toc)”으로 해석하였으며, nationalism을 “국가주의(Chu Nghia Quoc Gia)”로 번역하였다. 이것은 베트남 지식인들이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는 사회집단을 의미하는 민족이라는 개념이 국가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았다는 것이다. 오늘날에도 민족이라는 개념은 근대 국민 국가의 형성과 연계해서 논의된다. 보편적으로 nation을 민족 혹은 국민으로 해석하는 것도, 또 국민국가(nation-state)를 민족국가로 이해하는 것도 국민국가의 형성과정에서 민족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민족은 국민과 구별된 용어이다. 민족이란 일정한 지역에서 오랜 세월 동안 공동생활을 하면서 언어와 문화상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회 집단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문화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국민은 인위적으로 형성된 영토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을 뜻한다. 즉 국민은 국가의 경계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의 국가는 여러 개의 민족으로 구성될 수 있고, 하나의 민족은 여러 개의 국가에 소속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민족이라는 개념은 국민국가의 형성과정에서 발생하였지만, 때로는 국민을 대체하는 용어로서, 때로는 국가와 국민에 앞서 존재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당시 “nation”으로서 베트남인이라는 집단성은 전통적인 베트남 국가를 지탱해온 사람들로서 ‘킨족’을 가르키며, 킨족의 국가로서 베트남국가를 구상하였던 것이다(古田元夫 2008, 71). 결국 1920년대까지 베트남에서 민족의 범위는 킨족 중심주의에 머물렀고, 그 이후에 인도차이나 연방이라는 프랑스 식민통치 단위에 대응해 캄보디아, 라오스까지 포함하는 인도차이나 피압박 난민으로 확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

4. 민족주의의 심화기

1) 사회주의에 용해된 민족주의

1930년대 들면 프랑스 식민체제의 근대화정책에 의해 사회 경제적 구조의 변화와 계층구조의 다원화, 교육기회 확대 등이 진행되면서 지식인과 농민, 노동자의 연합에 의하여 민족해방과 사회주의혁명이 결합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혁명기반의 미성숙과 프랑스 식민정권의 혹독한 탄압으로 말미암아 1930년대 말에 이르기까지 민족해방운동은 침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1930년대 베트남 민족주의는 반식민주의와 조국해방 및 근대화라는 목표에서 점차 사회주의 이념에 기초한 민족국가 건설로 방향을 전환하게 된다. 기존의 민중봉기와 같은 산발적이고 비조직적인 민족주의 운동에서 벗어나 이념적·조직적 기반을 공고히 할 필요성을 인식한 것이다.

무엇보다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결합의 중요한 계기는 인도차이나공산당의 창설이었다. 1920년대 후반 사회주의 세력의 확산을 기반으로 하여 1930년 홍콩에서 인도차이나공산당(Dang Cong San Dong Duong)²⁾을 창설함으로써 민족해방과 사회주의 혁명이 공식적으로 연결될 수 있었다(박종철 1993, 205-206). 당명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 베트남 민족주의는 단순히 프랑스 제국주의로부터의 베트남의 독립이 아닌 인도차이나의 독립에 운동 목표를 두었다. 이것은 베트남 민족주의가 인도차이나독립을 위해 캄보디아인, 라오스인, 그리고 다양한 소수민족들과 연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것은 지금까지 베트남인 민족주의자들이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한 이질적인 문화를 가진 주변 민족들과의 결합 논리의 모색에 하나의 해답을 제시하는 역할을 했다. 인도차이나에 대한 베트남인의 재해석은 베트남인 중심주의를 극복하고 전통적인 남국의식으로부터 혁신의 길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古田元夫 2008, 89-90).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캄보디아, 라오스, 그리고 다른 소수민족들과 결속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캄보디아나 라오스의 경우 왕족이 아닌 일반인들은 프랑스의 근대식 교육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에 문명화된 계몽 지식인층이 존재하지 않았고, 주로 이들 지역에서 베트남인들이 식민통치행정의 관료집단을 구성하였기 때문에 베트남인에 대한 반감이 존재하였다. 또한 공산당은 '민족'이 아닌 '계급'의 논리를 강조하면서 노동자계급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데 이들 지역에서 노동자의 비율은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그리고 다른 소수민족들의 경우 아직까지 민족에 대한 개념 인식 조차 형성되어 있지 못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인도차이나공산당에서 다민족연대는 용이하지 않았다.

한편, 1936년 프랑스에서 인민전선이 선거에 승리하자, 베트남 정치인들이 석방되고 노동조건이 개선되었으며 제한적이거나 정치활동이 가능해지는 등의 식민지정책노선에 변화가 일어났다. 이에 따라 인도차이나공산당은 해방과 독립에서 인도차이나 민주전선을 구축하여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것으로 목표를 변경하였다. 그러나 1939년 프랑스의 인민전선 내각이 붕괴되고 베트남사회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재개되었다. 이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베트남의 민족주의는 또 다른 전환기에 접어들게 된다.

이상과 같이, 1930년대 베트남의 민족과 민족주의는 사회주의 이념과 결합하면서 인도차이나라는 거시적인 틀에서 민족을 재정의하고, 민족보다 계급의 논리를 강조하였으며, 베트남에 국한하지 않는 인도차이나의 독립에 목표를 둔 민족주의 운동으로 변모하게 된다. 따라서 베트남역사에서 1930년 베트남의 민족주의가 가지는 의미는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베트남중심주의의 극복과 다민족연대의 시도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2) 호치민은 '인도차이나 공산당', '안남 공산당', '인도차이나 공산주의자 동맹'이라는 3개의 조직대표들과 함께 '베트남공산당(Dang Cong San Viet Nam)'을 창립하였는데, 이것은 1930년 10월 인도차이나공산당(Dang Cong San Dong Duong)으로 개칭되었다.

2) 민족해방전쟁과 통일된 국민으로서의 민족주의

독일과 일본 등 후발 자본주의국가들이 과시증화되면서 식민지 팽창정책을 확대 추진하게 되었고, 1939년 9월 3일 독일의 폴란드 침공에 대해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에 선전포고를 알리면서 제2차 세계대전(The 2nd World War)이 발발하였다. 1940년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하자,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정부는 일본과 협력하여 일본군의 베트남 주둔을 허용하게 된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일본이 인도차이나반도에 진출하면서 베트남 민족해방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1940년 9월 일본군과 프랑스식민정권의 협정으로 베트남에서의 양자의 공존은 식민정권의 권력 약화를 가져와 베트남 민족해방전쟁의 군사적·정치적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박종철 1993, 213). 혁명세력은 인도차이나 지역에서의 권력공백상황을 이용하여 통일전선을 구축하고 대중동원을 확대한 것이다.

1941년 5월 북부 카오방에서 개최된 인도차이나공산당 회의에서 '민족해방혁명' 노선이 새롭게 정립되었다. 베트남혁명이라는 개념이 부활되고, 반제국주의와 계급투쟁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전의 혁명노선 대신 민족해방을 최우선과제로 인식하고, 이전의 계급논리에서 민족단결원칙으로 선회하였다. 인도차이나혁명에서 베트남혁명으로 복귀한 것은 새롭게 구성된 베트남독립연맹(Viet Minh, 이하 베트민)을 통해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1930년대까지 킨족을 중심으로 하는 베트남 민족의 개념을 문제 삼았던 공산당이 1940년대 들면서 베트남민족에 킨족과 함께 베트남에 거주하는 여타의 소수민족을 포함시키면서 베트남민족의 개념이 베트남국민을 의미하는 것으로 치환되었다는 점이다. 즉, 베트민의 결성은 민족의 범위를 킨족을 중심으로 여타 소수민족을 포함하되, 인도차이나가 아닌 '베트남에 살고 있는 민족'이라는 범주로 그 경계를 명확히 하였던 것이다. 기존에 계급적 연대를 강조한 혁명노선에 한계가 드러나면서 민족의 개념을 국민적 연대의 방향으로 전환한 것인데, 이것은 베트민이 타이족을 비롯한 소수민족의 거주지인 박보지방에 근거지를 마련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협조와 결부된 것이기도 하였다(유용태 2006, 419).

1943년 베트민은 최대의 근거지인 박보지방의 카오방(Cao Bang)에 해방구를 건설하고, 학교와 신문 등을 통해 정치선전 및 교육활동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역사적으로 차별을 받아왔던 소수민족을 '베트남 국민'으로 규정하고 우호적인 정책을 실시하여 이들을 민족해방투쟁에 동원하였다. 결국 베트민은 킨족 중심주의라는 배타적인 민족의식에서 벗어나 여타의 소수민족도 포함하는 다민족중심주의를 채택하고, 혁명을 통해 건설할 국민국가는 킨족과 소수민족이 평등하게 살아가는 국가로 설정한 것이다. 킨족과 여타의 소수민족을 아우르는 새로운 개념의 민족을 창출하는데 필요한 논리는 인민주권설에 의거한 민족평등론이었다(유용태 2006, 420).

그런데 1945년 3월 일본군이 프랑스 식민정권을 무력으로 전복시키고 베트남에 친일과도 정부를 수립하였다. 당시 일본군의 지배권은 도시지역에 한정되었고, 이에 따라 무정부 상태가 된 농촌지역에서 베트민은 통일전선을 구축하고 대중동원을 확대하였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로 치닫자, 일본군은 연합군과의 전쟁에 몰두하였고, 친일과도 정부는 대기근의 위기 앞에 무기력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상대적으로 대도시에 기반이 취약했던 베트민의 세력 확장에 중요한 기회로 작용하였다. 1945년 8월 일본이 패망하기 전 베트민이 주도한 민중봉기는 근거지인 박보를 비롯하여 전국의 도시와 농촌으로 확산되었다. 8월 19일 대대적인 시위로 베트민은 하노이를 장악하였고, 이어 8월 30일 과도정부로부터 권력을 이양 받았다. 대중적이고 전국적이었던 8월 혁명을 통해 사람들은 ‘베트남국민’이라는 새롭게 발견된 집단성을 체험하게 되었고(古田元夫 2008, 128), 이러한 체험은 소수민족을 포함해 베트남 북부, 중부, 남부의 모든 사람들이 공유함으로써 오랜 세월 지역감정으로 분리되었던 북부, 중부, 남부지역이 영토적 일체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5. 민족주의의 재구축기 : 베트남전쟁과 ‘베트남국민’의 형성

1945년 9월 2일 호치민은 하노이에서 독립을 선언하고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수립하였다. 하지만 연합국의 포츠담 선언으로 인해 베트남은 북위 16도선을 경계로 북부와 남부로 분리되었는데, 북부에는 중국 국민당이 진주하고 남부에는 영국군이 진주하였다. 남부에 진주한 영국군의 지원을 받아 1945년 9월 프랑스는 남부베트남으로 복귀하였고, 남부 베트남을 접수한 프랑스군의 재침략과 북부 지역에서의 주둔 허용으로 제1차 인도차이나전쟁이 발생한다.

제1차 인도차이나전쟁은 1946년 12월 22일부터 1954년 5월 7일 ‘디엔 비엔 푸’ 전투에서 프랑스군이 항복하기까지 베트남을 비롯한 인도차이나 전역에 걸친 전쟁이었다. 제1차 인도차이나전쟁의 초기에 베트남 민주공화국은 베트남을 동남아시아의 지역국가로 규정하고 타이와 의 연대와 캄보디아 및 라오스 저항세력과의 협력을 도모하였다. 제1차 전쟁은 1954년까지 장기화되었는데, 여기에는 1949년 중국대륙의 공산화로 인한 냉전체제의 심화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 이어 한국전쟁의 발발과 미얀마,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공산주의자에 의한 소요사태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이제 미국의 관심은 아시아로 집중되었다.

인도차이나전쟁은 1954년 7월 20일 제네바협정으로 종결되고, 인도차이나는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의 세 나라로 분리되었으며, 베트남은 북위 17도선을 경계선으로 남북으로 분단되었다. 북부지방은 호치민이 새롭게 결성한 베트남노동당이 주축이 되어 베트남민주

공화국이 건설된 반면, 남부지방은 프랑스군은 물러갔지만 미국이 그 자리를 메웠다(Ellis 2005, 48). 남부 베트남에 들어선 지엠정권은 미국의 지원을 받아 1958년 반공법을 시행하고 남베트남 내의 노동당 조직을 탄압하기 시작했다. 남부 베트남은 잦은 내란과 민중탄압으로 혁명적 갈등이 고조되었고, 여기에 미국의 개입으로 내전과 국제전이 복합된 형태로 상황이 복잡해졌다.

냉전시대 헤게모니를 장악하려던 미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의 탄생으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는데, 공산주의를 봉쇄하고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구축을 위해서는 중국 공산주의의 영향력이 작용하는 인도차이나지역에의 개입이 필요했다. 미국의 개입은 1964년 8월 톤킨만 사건과 북베트남에 대한 폭격, 1965년 2월 지속적 폭폭 개시, 1965년 3월 미 해병대의 파견 등의 국지전 양상으로 확대되었다. 하지만 베트남에 공산주의가 확산되면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라는 미국의 우려는 오히려 중국에 대한 북부 베트남의 의존성과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결국 냉전체제 속에서 베트남이 민족적 주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중국에의 의존이 불가피했던 것이다.

1965년 7월 미국은 반공체제의 유지를 위해서는 대대적인 전쟁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미군 전투부대의 대량투입을 결정하였다. 베트남전쟁은 국지전 형태로 이루어졌지만, 미국과 베트남 양국의 피해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1960년대 후반부터 베트남은 중국과 소련으로부터 원조를 받기 시작했고, 강대국에 대한 물질적 종속관계가 심화되면서 오히려 베트남의 주체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전개되었다. 그리하여 미국과 미국이 지원하는 남부베트남 정부에 맞서 베트남 공산주의자 혁명세력은 친미정권의 타도와 남북통일을 목표로 하는 반미주의적 민족주의가 형성되기에 이른다. 이와 동시에 미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애국심을 강조하게 되었는데, 당시 국민국가의 통합원리는 바로 베트남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베트남주의와 애국주의였던 것이다. 미국과의 대립은 베트남전쟁으로 이어졌고, 캄보디아와 라오스가 휘말리면서 제2차 인도차이나전쟁으로 확대되어 1975년까지 지속되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국과 인구 3천만의 약소국 베트남 간의 전쟁은 미국의 승리로 종결될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베트남 해방전선의 승리로 끝이 났다. 결국 1973년

미국은 파리협정을 체결하고 미군철수를 약속했다. 그리고 1975년 호치민의 군대가 사이공을 점령함으로써 30여년에 걸친 민족해방전쟁이 종결되고, 1976년 6월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Socialist Republic of Vietnam)을 건설하였다. 베트남전쟁의 종결과 남북통일이 가지는 의미는 분단이라는 냉전구조 속에서 국제정치에 의해 강요한 남북분단을 통일로 이루어냈다는 점과,



세계 패권을 쥔 강대국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지배권에서 벗어나 중국과 거리두기를 촉진하였다는 점이다.

이상과 같이, 베트남의 독립은 반제국주의적 민족주의의 정당성을 약화시키기도 했지만, 냉전체제 속에서 장기화된 강대국과의 전쟁으로 반제국주의적 민족주의는 지배이데올로기로서의 지위를 연장할 수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베트남은 8월 혁명을 통해 베트남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을 ‘베트남 국민’이라는 새로운 집단성으로 규합시켰다. 이것은 제국주의 프랑스와 미국이 소수민족을 베트남 국민에서 분리하고자 했던 것과 비교된다. 물론 프랑스와 미국과의 전쟁에서 베트남 민주공화국은 군사적·전략적 요지라 할 수 있는 산악지대의 소수민족들을 베트남국민으로 결집시킬 필요가 있었다. 베트남 공산주의가 전개한 민족주의는 모든 민족이 베트남국민으로서 단결하는 것과 이를 촉진하기 위한 모든 민족의 평등이라는 두 원리로 요약된다(古田元夫 2008, 173-174). 이러한 맥락에서 소수민족 출신의 간부 양성, 구역자치권의 인정, 베트남어와 민족어의 발전을 위한 이중 언어정책 등을 실시하였다.

한편, 베트남의 소수민족정책은 여러 민족의 ‘평등’과 베트남국민으로서의 ‘단결’이라는 2개의 이념이 그 핵심이었다(小野浩美 2006). 그런데 베트남 전쟁이 격화되는 1960년대 중반 이후 베트남인 공산주의자의 민족정책은 ‘단결과 평등’ 원리 중에서 ‘단결’로 전환되었는데, 그 핵심은 킨족을 중심으로 다른 민족들의 단결을 강조하는 것이었다(古田元夫 2008, 187). 저항과 투쟁의 역사 속에서 생성, 강화되어왔던 민족주의의 신화도 장기화된 전쟁 속에서 소수민족에게 단결만을 강요하는 것은 내부의 소수 민족 문제, 즉 하위 민족주의를 형성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것을 민족주의의 재등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여러 민족이 공산당 일당 통치 하에 하나의 국정 민족 속에 억눌려 있다가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와 함께 독자적인 정치체제를 가진 여러 민족으로 분리 독립한 소련과 동유럽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의 경우 전체 인민의 단결을 호소하는 ‘반제국주의 민족론’이 국민국가 형성의 지배담론으로 자리 잡아 갔기에 민족해방투쟁운동이 완결되는 1975년 베트남전쟁 종결까지는 이들 소수민족의 자결권은 논리적으로도 인정될 수 없었다(유용태 2006, 424). 이것은 1960년 남부 베트남 민족해방전선 강령에서 잘 드러난다. 당시 베트남 민주공화국은 중국의 민족구역자치제를 도입하여 1955년부터 1975년까지 베트남 북부에 국가의 하위체제로서 2개의 민족자치구를 두었다.

그리고 소수민족 사회에 대한 사회주의적 개조 작업의 일환으로 1960년 국민기초조사를 진행하고 ‘민족 식별’ 조사를 진행하여 54개 민족을 국정민족으로 확정하였다. 1960년대에 시작된 베트남의 민족확정작업은 사람들을 민족으로 구별하고, 거기에 국정민족의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고, 냉전체제 하의 국제사회에 있어서 사회주의정

책의 우선성을 보여주는 수단이라고 보았다. 이것은 동시에 국정민족과 우대정책을 결부시켜 실행함으로써 소수민족 간에 베트남의식을 보급시키기 위한 시도였고, 위에서부터의 국민통합정책이었다(伊藤未犯 2010, 65). 이후 행정기관이나 합작사의 관리조직 구성에는 토착주민의 민족성분을 반영하는 것이 국가정책이 되면서 자치구의 의미가 사라지게 되었다. 또한 베트남어와 다른 소수민족 언어의 질적 차이를 인정하고 베트남어의 중심적 역할을 강조하였다. 베트남전쟁의 확대에 따라 87%를 차지하는 핵심민족인 킨족의 언어, 문화, 가치기준을 그대로 전국의 소수민족들에게 이식하는 동화주의에 입각한 일원적인 통합을 추진하였다(유용태 2006, 421). 결국 1960년대 들면서 베트남의 민족주의는 킨족 베트남인 중심주의로 회귀하고, 동화정책을 통해 소수민족의 베트남화를 추구하면서 그들의 주체성과 자주성을 제한하였다.

6. 민족주의의 새로운 전환기 : 베트남식 민족주의

근대 이후 일관되게 추구해 온 유일한 목표이자 최대의 과제였던 통일된 민족국가의 건설은 1976년 7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건립으로 성취되었다. 통일된 베트남은 1978년에 남베트남의 개조사업을 실시하고, 이로 인해 화교의 대량 귀국사태가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후일 중국 공산당과의 관계 악화로 이어졌다. 1977년부터 계속되었던 캄보디아와의 국경분쟁이 도화선이 되어 캄보디아를 지지하던 중국 공산당은 1979년 2월 베트남 북부 국경일대에 중국군을 파견해 중국-베트남 전쟁을 일으킨다.³⁾ 이 전쟁은 1979년에 일시 중단되었다가 1989년 9월 캄보디아 주둔 베트남군이 철수하면서 마무리되었다.

캄보디아문제로 중국 공산당과의 관계가 악화된 베트남은 중국의 패권주의를 견제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이에 베트남은 사회주의 진영의 전초기지라는 자기규정은 유지하면서 그 의미를 중국의 대국 패권주의에 대한 동남아시아의 방파제라는 의미로 전환하였다(古田元夫, 2008: 221). 이러한 환경 변화로 인해 베트남은 중국과 거리를 두고 동남아시아속의 베트남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특히 베트남이 중국과 심하게 대립하였던 1978년 이후 동남아시아 일원임을 강조하게 된 것은 이러한 전략적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베트남 민족구성원의 다원성, 즉 동남아시아성이라는 문제를 제기한 것은 베트남 사회과학자들이었다. 1978년 이들은 베트남인의 기원론을 두고 중국과의 관련을 의미하는 북방 이주설이 부정된 대신에 인도차이나 중앙 산악지대에서 홍하유역에 이주해 온 몽 크메르계

3) 1979년 베트남군의 지원을 받아 캄보디아 구국 민족통일전선이 캄보디아 전국토를 지배하자, 캄보디아와 우호관계에 있던 중국이 무력 충돌에 나서게 되면서 중국과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의 집단이 북방의 타이계 집단과 접촉함으로써 베트남의 직접 조상이 되었다는 학설을 제기하였다(古田元夫 2008, 235). 이것은 이후에 베트남 학계의 권위 있는 가설로 인정되면서 베트남인의 기원은 동남아시아라는데 사회적 합의를 이룬다. 이들은 베트남인에 대한 이해는 동남아시아의 중심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베트남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동남아시아와 중국을 동시에 포섭한 서태평양 내지 아시아 태평양이라는 범위에서 안정된 국제질서가 무엇보다 중요했다. 최근 베트남이 동남아시아라는 지역성을 강조하는 한편 아시아태평양이라는 지역개념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白石昌也 1993). 사실상 인도차이나라는 틀은 베트남의 근현대사에서 베트남의 안전보장의 틀임과 동시에 베트남인에게 베트남의 다원성을 자각시킨 틀이기도 했다.

한편, 중국과의 관계 악화뿐만 아니라 미국의 고립정책과 무역금지정책으로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경제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갔다. 사실상 독립 이후 오랜 전쟁으로 경제적 어려움은 극도에 달했고, 가난은 애국심으로 극복되어 왔기 때문에 전후 국민적 충성심이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1986년 774.7%라는 최악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도 했다. 빈곤의 문제는 베트남 인민들의 불만과 저항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베트남 공산당 지도부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개혁을 단행하기로 결정한다. 이에 따라 1986년 12월에 개최된 제6회 공산당대회에서 ‘도이 모이(Doi Moi)’를 제창하고 적극적인 개혁정책을 시도한다. 베트남 공산당 지도부가 ‘도이 모이’ 정책을 채택하게 된 배경에는 사회주의가 단기간에 성취할 수 없는 중장기적 과제이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단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나가야 한다는 인식이 작용하였다. 도이모이의 목표는 시장경제에 준하여 국가관리 하에 인민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적으로 강한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무엇보다 경제개혁에 가장 역점을 두고, 사회주의경제에서 자본주의를 포함한 혼합경제로의 이행, 국가주도의 계획경제로부터 시장메커니즘의 도입, 중공업육성의 경제발전에서 농업 및 수출지향의 경공업 위주의 경제발전으로의 이행, 일국의 폐쇄적 경제에서 외자도입 등의 개방경제로의 이행⁴⁾, 기업의 자주재량권의 확대, 농업생산청부제⁵⁾의 도입 등을 추진하였다.

그런데 베트남에게 있어 프랑스나 미국에 대한 저항전쟁을 지탱해 온 이념이었던 사회주의는 중요한 지배이데올로기이고, 또 외세에 의해 이식된 북한과 달리 내부 발생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국민들도 사회주의 자체에 대한 불만은 크지 않았다. 따라서 내부적으로 시장경제, 대외적으로 자본주의 세계체제에의 편입을 추구한 ‘도이 모이’ 정책이 오히려 사회주의체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큰 저항 없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베트남 특유의 민족주의와 실용주의적 특성이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4) 1991년 11월 중국-베트남 전쟁이후 대립 관계이던 중국과 관계를 정상화하고, 서구 선진국과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도 개선해 나갔고, 1992년 7월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우호협력조약(파리조약)에 가입하기에 이른다.

5) 농업생산청부제란 토지를 농가단위로 나누어 경작하면서 일정한 생산량을 국가에 공납하고, 그 나머지는 개별 농가들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도이모이 개혁정책은 중국이나 소련과 달리 경제개혁과 함께 정치개혁을 병행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련과 동유럽의 사회주의국가의 연이은 붕괴는 베트남에서 사회주의체제의 지속 여부에 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베를린장벽의 붕괴, 소련연방의 해체 등 현실 사회주의체제가 붕괴되면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권위가 실추되었다. 사회주의에 대한 논쟁은 베트남에서 사회주의 노선에 대한 수정을 가져왔다. 베트남은 왜 사회주의의 길을 선택하는가에 대한 의문에 공산당지도부의 대답은 “호치민 사상”이었다. 제7회 공산당 대회에서 베트남공산당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병행해서 ‘호치민 사상’을 당의 사상적 기초로 결정하였다(古田元夫 2008, 233). 이것은 건국의 아버지이자 국민의 존경을 받는 호치민을 활용하여 지도력을 행사하고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려는 시도에서였다. 그런데 이제껏 베트남공산당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인류보편적인 타당성을 강조하는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에 자국의 지도자에 ‘사상’이라는 말을 붙여 민족화를 시도하는 것을 비판해왔다(永井義美 2009, 132). 예컨대, 1960년대 이후 “모택동사상”, “김일성사상”이라는 발상에 매우 비판적이었다.

그러나 1992년에 제정된 헌법에는 마르크스레닌주의보다 호치민사상이 중시되었다. 호치민은 내셔널리즘에서 레닌주의에 접근한 인물이고, 민족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 계급을 초월한 광범위한 민족통일전선의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다. 호치민사상은 베트남의 문화적 전통에 깊이 뿌리내린 사상인데, 이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공산당이 전통문화의 가치를 승인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永井義美 2009, 133). 이것은 베트남 공산주의가 계급적 관점보다는 민족적 관점에 역점을 두고,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를 베트남식 사회주의로 재해석하고 새롭게 창조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이제 ‘사회주의’를 추구하며 달려온 베트남공산당이 베트남 고유의 정치문화와 결합한 ‘베트남 사회주의’로의 전환을 모색하게 된 것이다. 특히 호치민사상은 도이모이 과제와도 밀접히 결부된다고 할 수 있다. 냉전 후 베트남의 사회주의개혁노선인 도이모이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호치민사상이라는 사상적 기반이 필요했다. 사회주의 베트남에서 ‘베트남 사회주의’로의 전환은 현재 베트남이 표방하는 사회주의가 외부를 향한 자기존재의 정당성을 알리는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주의를 견지한다는 안으로의 외침이며 전통적 정치문화와 민족주의와의 일체성을 강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古田元夫 2008, 234).

1980년대 이후 베트남공산당의 소수민족 정책을 살펴보면, 1970년대 말까지 계속되었던 민족 중심의 일원적인 국민통합 정책이 변화하는 계기는 캄보디아문제가 발생한 이후였다. 캄보디아와의 관계로 화인(華人)의 존재가 재평가되었기 때문이다. 소수민족정책의 일환으로서 설치되었던 민족자치구는 1975년 12월에 “일정의 역할을 다했다”는 이유로 폐지되었고, 그 이후 민족자치구에 관한 기록은 삭제되고, 현재 베트남에서 민족자치구는 “전민족단결”의 목소리 속에서

국가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것으로 보고 있다(伊藤正子 2010, 6).

그런데 도이모이정책은 베트남의 사회적 다원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베트남 정부는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민족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원성을 개발과 경제발전에 활용하고자 하였다(小野浩美 2006). 민족정책의 역점은 삨족을 주류로 하여 베트남 국민이라는 틀에 다양한 민족을 융합하기보다는 개개 민족이 사회주의 민족으로서 자기 형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데 두어졌다. 그리고 사회주의 국민으로서 베트남인이라는 공동체성에 여러 민족이 각각의 민족성을 버리고 융합하는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베트남 국민이라는 공동체성은 베트남인민의 공동체, 내지는 베트남 각 민족의 공동체라는 개념을 사용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다민족국가 베트남에서 다문화주의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공산당 일당체제에 의해 사회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커다란 대립구조를 양립시키고 있는 베트남에서 다문화주의를 가져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양립을 통해 국가발전을 이룬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다문화주의는 하나의 언어, 하나의 문화, 하나의 민족(국민)이라고 하는 고전적인 국민통합의 이념에 대립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고전적 국민국가의 이념에서 본다면 다문화주의는 혼란과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고전적 원리로는 더 이상 국민국가의 유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문화주의를 국가 재생을 위해 창출된 국민통합의 새로운 형태라고 본다면 오히려 국민국가이념이 문제시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국가의 이념을 전환하여 국민의 다양성이 국민정체성을 보증하고 국가의 통일과 안정감을 가져다준다고 할 때 다민족국가로서 베트남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민족의식의 변용과정〉

연도	역사적 배경	민족의식
1890	프랑스식민지	1920년대 “龍仙의 자손” 건국신화, 킨족중심주의
1930	인도차이나 공산당의 탄생	1930년대 베트남민족(킨족)은 인도차이나의 다수민족
1940	일본군 지배	1940년대 혁명의 구성원리를 “계급”에서 “민족”으로 전환하고, 베트남국민이 다민족국가라는 것을 제시
1945	8월혁명 베트남민주공화국 성립	1945년 8월혁명을 지나 베트남민주공화국이 다민족국가로서 탄생
1954	프랑스와의 전쟁 승리	1950년대 베트남의 역사학은 식민주주의적인 베트남사상의 극복과 사적우물론의 법칙에 의거했던 새로운 베트남사의 구축을 기본과제로 함
1960	베트남전쟁	1960년대초 베트남사에 다민족적 관점을 강조하지만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성
1970	베트남사회주의 공화국성립	1970년대 후반이후, 베트남사의 다원성을 재인식하고 “동남아시아성”을 중시하는 시점이 새롭게 등장함
1980	베트남공산당 제5회대회	1980년대 민족통합 강조
1990	베트남공산당 제7회대회	1990년대 호치민사상

참고문헌

- 박종철. 1993. “베트남의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혁명의 기원, 1910-1945.” 『동남아시아 연구』2, 197-219.
- 상허학회. 2009. 『상허학보』25. 서울: 깊은샘.
- 유용태. 2006. 『환호속의 경종』. 서울: 휴머니스트.
- 이병주. 2010. 『3불 전략』. 서울: 가디언.
- 최병욱. 1999. “19세기 전반 베트남의 소수민족 동화정책 : 남부의 상황을 중심으로.” 『1999년도 동양사학회 추계 학술발표회』 발표논문
- Anderson, Benedict. 1983. Imagined communities :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 『상상의 공동체』윤형숙 역. 서울: 나남. 2004
- Ellis, Claire. 2005. 『베트남』. 김양희 역. 서울: 휘슬러.

- 古田元夫, 2008. 『베트남의 세계사』. 박홍영 역. 충북: 개신.
- 小野浩美, 2006. “バトナムの少数民族について.” 『チャオ・バトナム』 31, 2006.4.10.
- 伊藤正子, 2010. “社會主義國家による民族確定政策の限界.” 『CIAS Disscusion Paper』 17, 리-지오나리즘의歷史制度論的比較.
- 永井義美, 2009. 『バトナム社會主義共和國における民族意識の變容』. 埼玉大學校大學院 박사학위논문.